

글· 사진 : 편집부

사회공헌운동 추진으로 축산업 이미지 제고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이사로 선임

##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출범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범 축산업계가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선진축산 구현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본관 회의실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축산업계의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운동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로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선출하고, 이사진에는 이창호 오리협회장을 비롯한 각 축산관련단체 회장 7명과 최윤재 서울대학교 교수 등 11명이 선출, 감사 2명까지 13명의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확정했다.

앞으로 나눔축산운동본부는 사회공헌활동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축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담하게 되며, 환경적 책임활동, 경종농가와

의 상생협력활동, 소비자들과의 이해교류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남성우 상임공동대표는 창립총회에서 “지속가능한 축산,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성공여부는 범 축산업계 지도자들의 참여와 관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25일에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낙농육우협회장), 이병모(양돈)·이창호(오리) 축단체 부회장, 이준동 양계협회장, 강준수 양육협회장, 김연화 소비생활연구원장, 나동훈 NH농협노조 위원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축협 조합장을 대표해 이종율·정연규 축산발전협의회 부회장도 참석했다.